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다*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	기간	2016. 7. 10(일) ~ 7. 3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토론토에서 비행기로 약 1 시간 거리에 있는 수세인마리에 있으며 규모는 우리학교에 비해서 작지만 시설은 편리하고 좋습니다. 저는 집같이 편했고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가끔 이곳에서 다람쥐나 여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쌀쌀할 수 있습니다.</p>
수업	<p>수업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speaking 과 reading 과 technology 반인데 전체적으로 편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합니다. 우선 speaking 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밝으시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수업에서 한번은 발표를 하고 발음을 배우며 일상 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과제도 딱히 없습니다. 단지 선생님을 잘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reading 수업은 선생님께서 수업 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에서 거의 함께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또 밝으시며 친절합니다. 과제는 주에 2-3 번씩 활동에 대해 배우고 느낀 것들 등 일기와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글쓰기에 부족한 사람들은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은 주로 읽고 문법에 대해 배웁니다. technology 수업은 reading 선생님과 같이 야외 활동에 인도해주시는 선생님이시며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technology 라 처음에 무슨 수업인가 영어에 관련된 수업이긴 한 건가 의아해했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캐나다에서 우리가 겪은 경험들 등 자기가 올리고 싶은 것들을 사진과 글을 써서 올리는 겁니다. 과제 역시 그냥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p>

Activity	<p>주로 한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과 딸기 따기, 모카신 만들기, 트레킹, 강에 놀러가기 등이 있었습니다. 자원 봉사는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딱지 접기, 부채 만들기, 우리나라 이름 쓰기 등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활동을 준비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준비물을 최대한 준비해주십니다. 또 수세인마리의 전통 축제로 축제에서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그 중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활동을 참여할 수 있고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딸기 따기는 딸기 밭에 직접 가서 따는 것입니다. 비용은 딸기 양만큼 돈을 냅니다. 모카신 만들기는 캐나다 전통 겨울 신발로 열쇠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트레킹은 말만 트레킹이지 산에서 산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이 정말 아름다워서 사진찍느라 뛰어다니며 바빴습니다. 강은 superior 이라는 곳인데 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닷가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맑았습니다. 이곳 역시 여유롭고 즐거웠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여름에 다녀왔는데 보통 맑은 날씨지만 자주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보단 덜 덥고 습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안전	여름에는 밤 9 시 정도까지도 낮처럼 밝아서 다니는데 편하고 거의 사람들이 다 친절합니다. 또 시골이라선지 위험한 상황도 딱히 없습니다.
숙소	제가 지낸 홈스테이 시설은 굉장히 아늑하고 집과 같이 편했습니다. 저를 위해 마련해주신 방도 정말 따뜻했고 저를 많이 배려해주셨던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분들이 정말 정말 좋으셨기에 더 오래 있고 싶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집에서 지킬 규칙도 딱히 없고 그저 편하게 지내라 하셨습니다.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p> <p>저는 홈스테이 엄마가 정말 좋으셔서 밀가루보단 거의 밥을 해주셨고 점심 때에는 도시락을 준비해줍니다. 역시 서양이라선지 거의 햄버거나 피자였고 제겐 거의 너무 달거나 짭니다.</p>
교통	<p>이곳은 종점이 결국 터미널이라 항상 터미널을 중심으로 버스가 다녔습니다. 버스는 거의 30-40 분에 한 대 였고 버스 운전사분들 역시 친절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학교까지 30-40 분 걸리지만 버스 정거장이 1-2 분 거리라 정말 다니기 편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부터는 버스가 거의 1 시간에 1 대라 여기에 약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버스 카드가 무제한이라 추가비용이 없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824,900	출국 전 사전 납부
합계		

** 저는 거의 가끔 외식, 기념품, 선물, 필요한 옷 등에만 비용을 썼고 그 외엔 필요한 비용이 딱히 없었습니다. **

5. 출국 전 준비사항

학교에서 알려주신 안내 대로 챙겨가면 딱히 필요한 건 없습니다. 선글라스는 햇빛이 강해서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저녁 때나 학교에서 쌀쌀할 수 있으니 겹옷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겐 이 어학연수가 제일 오래 머물렀던 외국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또 날씨도 제가 좋아하는 날씨였고 캐나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절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론토와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웠지만 저에게 이곳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수업도 그렇지만 여러가지 활동이 있어서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의미있었습니다. 3 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겐 정말 편한 곳이었고 홈스테이 가족들도 다 딸처럼 대해주고 부족할 것 없이 다 챙겨주고 배려해주셔서 행복한 3 주였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대로 훨씬 더 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 전공과 관련해서 그 동안 배워온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제겐 꿈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캐나다와 다른 점들을 느끼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 (6 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알고마 대학에서



다른 홈스테이 집에서



Agawa rock 에서



Bush plane museum 에서



Moccasin 열쇠고리



축제 중 Color Blast 완주 후



자원 봉사에서



딸기밭에서



Lake Superior 에서